

박삼구 금호 회장 “韓·日 해저터널 만들자”

양국 경제인 회의에서 ‘공동연구’ 제안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은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BSR: Business Summit Roundtable)’에서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이날 “한·일 해저터널이 한·중 해저터널까지 연계되면 동북아 전체는 물론 향후 유럽과도 연결돼 유라시아 대륙횡단의 대동맥이 완성될 수 있다”며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양국 재계가 공동 연구할 것을 주장했다. 박 회장은 유럽을 하나로 만든 영국

·프랑스 해저터널의 경우 2억 1000만 명의 여객과 1억 7000만t의 화물이 오가며 유럽 경제 활성화에 일조한 점을 예로 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석래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강유식 LG 부회장 등 한국 측 재계인사 15명과 미타라이 후지오 게이단렌 회장, 조 후지오(張富士夫) 도요타 자동차 회장 등 주요 경제인 12명이 참석했다.

김영진 기자 hellojin@chosun.com

朝鮮日報: 2008/10/11

錦湖アジアナ会長「韓日海底トンネルの建設を」

朴三求(パク・サムグ)錦湖アジアナ・グループ会長は 10 日、ソウルの新羅ホテルで開かれた「韓日ビジネスサミット・ラウンドテーブル(BSR)」で、「韓日海底トンネル」の建設を提案した。

朴会長はこの日、「韓日海底トンネルが韓中海底トンネルとつながれば、東北アジア全体はもちろん、今後ヨーロッパとも連結され、ユーラシア大陸を横断する大動脈が完成し得る」と語り、海底トンネル建設について両国の財界が共同研究すべきだと主張した。朴会長はヨーロッパを一つにまとめた英仏海峡トンネルについて、旅客 2 億 1000 万人と貨物 1 億 7000 万トンが往来し、ヨーロッパ経済活性化の一助になった点を例に挙げた。

この日のイベントには、全国経済人連合会の趙錫来(チョ・ソクレ)会長はじめ経済 5 団体の長及び錦湖アジアナの朴三求会長、コーロンのイ・ウンリユル会長、サムスン電子の李潤雨(イ・ユンウ)副会長、LG のカン・ユシク副会長ら韓国側から 15 人、日本経済団体連合会の御手洗富士夫会長、トヨタ自動車の張富士夫会長など日本側から 12 人の財界人が参加した。

金榮慎(キム・ヨンジ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